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윤서영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용모구분 초등학교(1-3학년)/초등학교(4-6학년)/중·고등 *대1

제 목 할머니와 함께간 빨간집 우체국

안녕하세요! 저는 국원 초등학교 2학년 5반 10번 윤서영입니다. 햇벌이 쨍쨍, 더운 여름 낮에 할머니와 나는 우체국에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도착이야?" 할머니는 "아직 출발한지 1분 밖에 안갔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 때 저는 깜짝 놀라서 시계를 잔뜩 들여다봤습니다. 드디어 빨간색이 보이는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체국에서 할머니가 보내는 택배는 목적지까지 가는거야?" 할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응, 그래그래"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우체국은 정말 신기해, 히히" 우체국이 하는 일들이 많구려!



2026-07-08 13:56:10/품질보장(충주) 000000

출력된 문서는 사용 후 폐기해주시요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윤서영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용모구분 초등학교(1-3학년)

제 목 할머니와 함께간 빨간집 우체국

우체국 아저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우체국 아저씨가 택배 배를 목적지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힘들게 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체국에는 힘들게 걸어갔지만 신기한 것들도 많고, 택배도 많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체국 아저씨, '조고야!'"



2026-07-08 13:56:10/품질보장(충주) 000000

출력된 문서는 사용 후 폐기해주시요